

| 노사정대표자회의_ 4개 의제별위원회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 발족,
“격차해소의 출발 사회안전망 정비부터”

송해순 전문위원

1. 대표자회의 이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발족 준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1.31.)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합의 이후, 사전 준비로써 전문가 및 미조직·취약계층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고용형태 다양화 등으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안전망은 재원 마련 등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였고 사회보험은 기여 형



태로 그에 따른 격차도 존재하므로,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와 같은 단기적 논의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마련’과 같은 거대 담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미조직·취약 계층 간담회에서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논의들이 필요하며, 미조직·취약계층도 다양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4.3)에서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하였고, 구체적으로 회의체 발족을 위해 준비회의(4.18)와 준비위원회(5.15)를 개최했다. 준비위원회에서 회의체 명칭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로 확정하였고, 논의의제는 ① (현재의 사회보험 시스템 내) 사회보험제도 개선 ②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③ 사회서비스인프라 및 재원·부과시스템 마련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위원은 장지연 위원장, 노동계 (미조직·취약계층 포함) 4명, 경영계 (미조직·취약계층 포함) 4명, 정부 3명, 공익 4명, 간사 1명 등 총 17명으로 정리하는 등 제1차 전체회의 발족을 위해 상당부분 기여했다.

2. 1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7월12일(목) 대회의실에서 제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논의 의제, 위원 구성,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인 논의의제는 ① (현재의 사회보험 시스템 내) 사회보험제도 개선 ②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③ 사회서비스인프라 마련 등 대분류를 중심으로 하되, 세부논의의제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제안의제를 반영하여 정리키로 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공식인 민주노총 자리에 ‘민주노총과 협의 → 위원회 동의’라는 조건을 기본으로, 민주노총 담당자가 참여하기 전까지 한국노총에서 참석키로 했다. 미조직·취약계층은 노사에서 각 1인을 추천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에서 2인을 추가 추천키로 하였다. 이로써, 최종 구성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각 3명, 정부 3명, 공익위원 6명, 간사위원 1명 등 17명으로 구성(첨부 참고)하며, 추가된 위원들은 제2차 전체회의부터 참석하기로 했다. 간사단으로는 장지연(위원장), 유정엽(노동계), 김동



육(경영계), 김영중(정부), 윤홍식(공익), 송해순(간사위원) 등 6인으로 구성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 관련 논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위원회를 통한 사전 논의 진행이 필요(사회적 정당성 확보 활용 가능)하며, EITC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 위원회 외부에서 정리되는 상황에 따라 논의 여부를 타진하기로 했다. 운영은 상황에 따라 투 트랙(단기과제, 중·장기과제)으로 논의 가능하며, 운영계획은 계속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3. 발족 의의 및 목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발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6.12. 노사정 합의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별위원회이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본격화를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사회안전망에서만큼은 더 이상의 격차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노사정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고삐를 죄고 포용성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복지정책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2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제2차 전체회의(7.19. 목)에서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기획재정부), 고용보험제도 현황(고용노동부), 제안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부 차원의 발표(7.18. 수)가 있었지만 추후 추진 일정(국회 논의 등)이 남아있으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키로 하였으며, 고용보험제도 역시 특고 및 예술인·장기실직자(자발적 이직자) 등까지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이 법 개정 추진 단계이므로 위원회 의견을 모아 전달키로 했다.

차기 간사단회의에서는 논의의제 및 향후일정 정리, 전체회의에서는 전문가 발제 등을 진행키로 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위원	
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위원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조직·취약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공석 (참석 전까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참석)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경영계	한국경총 대한상의 미조직·취약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정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역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익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간사		송해순 전문위원